

종교·언어·인종 초월 '5천여명 성황'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11일 독일 에센 대법회

진리의 법문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공간적 차이도, 피부색과 문화적 관습의 차이도 뛰어넘는 거대한 힘을 지녔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지원장 헤진스님) 주관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독일 중부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대도시 에센의 그루가 할레에서 열린 '한마음선원 선원장 대행스님(75세) 초청 대법회'는 새삼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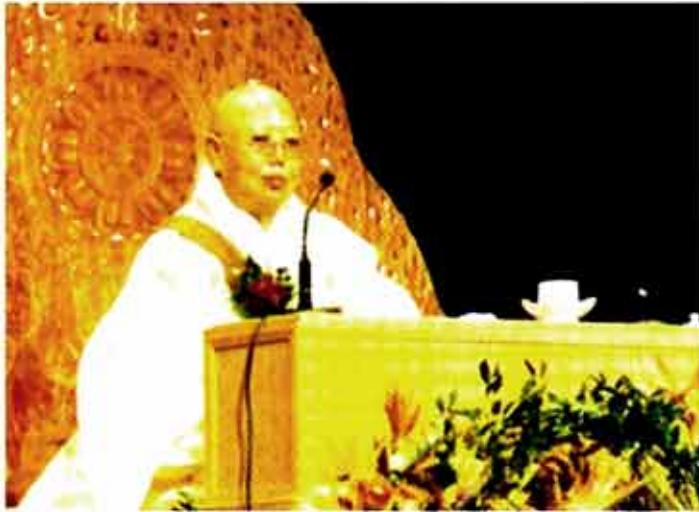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는 베르너 비그만(Werner Wiegmann) 독일 불교연합 회장, 진포 되링(Genpo Dering) 독일불교연합 운영위원, 다그마 바스케니히(Dagmar Waskenig) 독일불교연합 고문, 볼프강 가이어호스(Wolfgang Geierhos) 작

센주 경찰대학 학장, 디터 슈미트-노이하우스(Dieter Schmidt-Neuhaus) 교수(화학), 오르트빈 부흐벤더(Ortwin Buchbender) 독일 연방군 정보학교 교장, 헬무트 글루브레히트(Helmut Glubrecht) 태양에너지 연구소 고문, 안드레아스 기센(Andreas Giesen) 노이시(市) 문화담당관, 남창현 주독대사관 상무관, 정효성 서울시청 파견관 등 독일의 정신 문화계, 교육계, 정치계 인사와 현지 불자, 재독교포불자 등 5000여명이 참가해 인종과 국적 종교의 차이를 넘어 스승의 법문을 경청했다.

이날 법회는 독일어와 영어로 동시통역됐으며,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세상 모든것이 자기 에너지의 현현”

법회연장



그루가 할레 2층 중앙 법당에 앉은 대행스님.

아갈수 있습니다. 이 도리를 알면 전체가 들어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질문이 이어졌다. 한 독일인은 “여러 종교의 원리를 보면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같은 종교인데도 여러 종파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자기라는 관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한번 이렇게 나왔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왔다가 또 다시금 재생이 되어서 다시금 나올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 떼어놓고 그러니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시간가는 것도 잊은채 현지 불자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의심과 문제들을 털어놓았다. 자기살현의 문제, 부모와 가족으로 이어지는 인연의 문제, 나아가 지구적 생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일일이 답해주셨다. 불자를 또한 진심하고, 힘이 넘치는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통역자의 말에 온 마음을 집중했다. 독일 에센 그루가 할레에서의 대행스님 대법회는 이같은 열렬한 호응 속에 성황리에 회향했다.

정리=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은 독일 에센시 그루가 할레를 가득 메운 불자들에게 '인클랑(EINKLANG)'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평생의 길 찾았습니다”

법회참석 소감

지그문 호펜스메르거: “스님! 당신이 보여주시는 삶과 당신에게서 풍기는 아우라에서 저는 스님의 가르침이 선 그 자체이며, 그 어떤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온전히 포함하는 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불교에 교화되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독교 전통

을 완전히 부정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를 가지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스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이며 참 나를 찾는 데 종교에 대한 분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참나 주인공이라는 표현이 신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아름답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가 더 뚜렷해집니다.”

브리기트: “이번 대법회에서 스님께서는는 말없는 말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법회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 법회장이 진리로 넘쳐나고 있음을 저는 깊이 느

꼈습니다.”
루츠 헨델: “나는 평생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온 겁니다. 이 분은 엄청난 오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안네: “나는 요가난다의 제자입니다. 내가 오늘 왜 에센에 와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환회에 가득 한 가슴을 안고 갑니다.”

만프레드: “저에게 하나됨이라 함은 생각과 행동이 둘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번 대법회는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페터: “하나됨은 사랑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회는 정말 훌륭한 법회였습니다.”

인드레아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감화를 받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한국 대선사의 가르침에 매료”

현지언론 반응

“에센 그루가 할레가 불교 사찰로 변했다. 수천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대선사의 가르침에 매료했다.” 독일 ‘빌트’지는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독일 대법회가 열린 11일 에센 그루가 할레의 열기를 이렇게 전했다.

에센지역의 대규모 시설로, 각종 행사 국제종합회의장으로 사용되는 그루가 할레에 독일 각지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기 위해 수천의 인파가 모여 들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행사도 아닌, 머나먼 동양의 나라 한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의 대법회가 열리는 종교행사였기에 현지 언론의 관심과 놀라움은 더욱 컸다.

‘빌트’지는 또 당시의 법회 현장 주변의 모습을 이렇게도 소개했다. “한 젊은이가 화가 잔뜩난 얼굴로 그루가 할레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이 사랑이다. 진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젊은이의 말에 전혀 아

랑하지 않고 법회장으로 들어선다.”
지난 10년 동안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약 1백만 명이 교회를 탈퇴한 독일의 현실에서는 동양의 한 종교에 불과한 한국불교의 한 비구니 스님 법회에 대한 열기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독일 최고의 전통을 갖고 있는 유력 일간신문인 ‘프랑크푸르트 알레마이네 짜이퉁’지는 7월 31일자 신문에 한마음선원과 인연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심여’ 보살 로즈비타 피트너 부인의 일상을 통해 한마음선원 독일지원과, 대행스님, 그리고 나날이 늘어나는 신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클트너 슈타트 인사이거’ 지도 10일자 신문에 지난 99년 법회에 이은 두 번째 법회의 성황을 예견하고, 대행스님의 행장, 세계 각국의 한마음선원 지원과 신도수 등에 대해서 보도했다. 또 한국에 설립된 심성과학연구소의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보도하면서, 과거의 종교가 이제 미래로 발을 내딛던 것이라고 평했다.

참관기

한국법우들 수고로 모든행사 여법 회향

유배 빌헬름(독일 베를린 경찰간부)

내가 한마음선원과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종교적인 관심에서라기 보다 문화적인 호기심에서 카스트의 독일 한마음선원을 찾았다. 매주 일요일에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스님의 법문은 내 마음 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알게 해주었다.

지난 11일 독일 에센시의 그루가 할레에서 열린 대법회는 ‘공생, 공용, 공심, 공제, 공식’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2년 전 법회에서 해탈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다면, 이번 법회는 그러한 해탈에 문에 들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주인공 개념이 법문의 핵심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두 법회의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9년 대법회에 왔던 많은 분들이 이번 2001년 대법회에도 왔으며, 2년전 법회를 거치지 않고 이번 법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았다.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점은 대행스님께서 독일까지의 고되고 먼 여행을 다시 한번 하셨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스님께서 연로하시고 건강상태가 최상이 아닐 때도 불구하고 독일대법회를 위해 와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나. 스님께서는 힘든 여정에도 불구하고, 몸이 있는 힘을 모두 모아 법회를 이끌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로의 통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주인공의 힘을 끌어다 쓰셨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이번 법회는 법회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법회 준비과정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나에게 주었다. 법회준비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면 서도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기뻐하는 모습에 놀랐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에서 외 독립지원 청년법우들과 몸과 마음을 합하여 홍보활동에 전력한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싶다.

대형 오색연등 1백개 장엄

이어지는 질문...자상한 대답

오는 그 에너지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이겁니다. 불성! 다시 말해 불성이 에너지로 회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자신의 주인공 불성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라는 얘기입니다.”

스님의 법문이 시작되자, 청중들의 눈과 귀가 법당으로 향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은 이번 법회의 주제인 ‘인클랑’에 대해 다시 구체적인 가르침을 설했다.

“열심히 관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끝나 아닌 나! 니가, 당신이 모든 것을 해 나가니가 당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 아나게 되어 만이 될 집적인 내 모습과 정신계의 나, 보이지 않는 나와 돌 아나게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사를 공생, 공심, 공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산사람도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로 보지 않는다면 조상들로 한 몸이 되어서 제각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돌로 보지 않고 공생, 공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조금도 결핍없이 살



한복을 차려입고 도우미로 나선 독일현지불자와 법회홍보물을 살펴보는 참가자들.



법회현장으로 입장하는 참가자들을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반기고 있다.



대법회가 열린 에센시 그루가 할레 전경.